

# 최치원[崔致遠]

## 시대를 만나지 못한 비운의 천재

857년(문성왕 19) ~ 미상



최치원 표준영정

/ 전통문화포털(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) /

### 1 개요

최치원(崔致遠, 857~?)은 신라 말에 활동한 대문장가이자 학자, 관료이다. 그는 12세의 나이로 당(唐)에 유학을 가 7년 만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인 빈공과(賓貢科)에 장원 급제하는 등 두각을 나타낸다. 특히 글을 잘 지어서 명성이 매우 높았다. 그는 신라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귀국하였으나, 골품제(骨品制)라는 폐쇄적인 신분제의 벽에 막혀 뜻을 펼치지 못하고, 말년에는 속세를 떠나 은거 생활을 하였다. 그는 신라 말~고려 초라는 변혁의 시대를 살아간 대문장가이자 학자였지만, 자신의 재능과 뜻을 펼치지 못한 비운의 인물이었다.

### 2 출신과 가계

『삼국사기』 열전 최치원조(列傳 崔致遠條)에 따르면, 최치원은 신라 왕경(王京, 지금의 경북 경주시) 사랑부(沙梁部) 사람으로, 857년(문성왕 19, 헌안왕 1) 태어났다. [관련사료](#) 『삼국유사(三國遺事)』 권1 신라시조 혁거세조(新羅始祖 赫居世條)에는 본피부(本彼部)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, [관련사료](#) 이때 신라 6부는 왕경의 행정구역명이었기 때문에, 어느 쪽이든 신라 왕경 출신이었음은 분명하다. 자(字)는 고운(孤雲) 혹은 해운(海雲)이다.

기록이 없어 그의 집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, 몇 명의 가족 및 친척 이름만 확인할 수 있다. 아버지는 견일(肩逸)로 원성왕(元聖王, 재위 785~799)의 원찰(願刹)인 숭복사(崇福寺)의 창건에 참여한 인물이다. 또 형으로 화엄종(華嚴宗) 승려인 현준(賢俊)이 있었고, 종제(從弟)인 서원(栖遠)의 이름도 확인된다. 이것이 그의 가계에 대해 알려진 전부이다. 한편 신라에서 최씨는 6두품(頭品)을 대표하는 성씨여서, 최치원 집안 역시 6두품으로 여겨진다.

### 3 천재 소년, 당에 유학 가 이름을 떨치다

최치원은 어려서부터 아는 것이 많고 현명했으며 공부하기를 매우 좋아 하였다. 그는 불과 12살의 나이에 당(唐) 유학을 떠나는데, 이때 그의 아버지 견일이 “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”라고 기대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인 천재였다. [관련사료](#) 실제로 그는 당에